

# '나홀로 보안인사'가 낳은 비극 박근혜정부 출범도 전에 타격

## 김용준 총리후보 전격 사퇴 배경과 과정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용준 후보자가 29일 지명 5일 만에 물러났다. 역대 정부의 조각(組閣)을 감당했던 인사검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해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한 것이다.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의 상징성을 지녔으나 지명 후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1970년대 부동산 매입 등 재산증식 과정이 격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정권 출범작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격 사퇴 배경=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전격 사퇴한 배경에는 본인의 재산이나 과거행적,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및 재산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본인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우려를 조기에 식상시키고 남은 명예라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격 사퇴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용단'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첫 인사였던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키치는 의혹 '부담' = 우선 총리 지명 당시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74세의 그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에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법치주의와 청렴성을 지켜온 원로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약자보호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민주통합당도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김 지명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상황은 크게 반전됐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70~80년대 김 지명자가 수도권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일었고, '체중 미달'과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두 아들에 대한 의혹이 집중 제기되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5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긴 것과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까지 일면서 사실상

낙마한 이동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야권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은 "분위기가 과유불급에서 임전무퇴로 바뀌고 있다"면서 공세적 태도로 변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 여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부담감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장에서 더 많은 의혹제기와 함께 '수모'를 당하며 나타나는 우려와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각 차질 불가피=김 지명자의 전격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조각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예초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통과한 뒤 장관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무위원을 포함 부처의 수장을 임명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기도 전에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논란 속에 결국 낙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다음 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교육 희망선언' 선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지역 15개 기관·단체 대표들은 29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교육 희망선언'을 선포했다. 이들은 ▲광주교육 책임네트워크 구성 ▲반교육적 차별·학교 폭력 없는 학교 실현 ▲민주·인권·평화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장려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교육투자 ▲친환경 무상 의무 급식 등 모두 10개항의 실천을 다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교사회서 교장 제외 규정 그대로 유지

### 광주시의회, 학교자치 조례 수정안 본회의 통과 주목

광주지역 학교 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맞섰던 학교자치 조례 수정안이 29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반발 여론이 심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지 미지수이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 학교자치 조례를 놓고 지역 교육계의 찬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학교자치조례안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교사·학생·학부모·직원

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담을 심의·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위는 인사위원회의 명칭을 인사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장이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 교무회의에 보고하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인사자문의 결정과 교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교장이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권한 해석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특히 직원회에 행정실장을 포함하기로 규정을 바꿨지만, 논란의 핵심 규정 가운데 하나인 교사회에서 교장을 제외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조례안이 상위에 위배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안한 조례안을 수정한 시교육청 안을 심의하고 교육위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교자치 조

례는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이 지역 진보계열의 교육단체가 앞장서 발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학교자치 조례가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조례안 반대 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처럼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 학교자치 조례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위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부칙을 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F1 입장권 판매 시작

### 조직위, 4등급 세분화... 사무실 이전도

F1대회조직위원회가 29일 영암 F1경주장(코리안인터내셔널 서킷·KIC)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올해 대회 입장권 판매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오는 10월 4일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 한국대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입장권 판매와 함께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지난해 3등급 분류에서 올해는 좌석 선호도를 고려해 4등급으로 세분해 판매된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R등급과 S등급은 기업 및 F1 마니

아층에게 프리미엄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가정책을 유지했다. A와 B등급은 중장기적인 F1 마니아층 확보를 위해 전일권이 아닌 1일 권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을 위한 1만~2만원대 금요일권 저가권도 판매된다. 또 3월 말까지 구매할 고객에게는 40%, 4월 말까지는 30%, 5월 말까지는 20% 할인 혜택을 준다. 입장권은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 G마켓티켓(gmarket.co.kr)과 F1 홈페이지(www.koreangp.kr)에

서 살 수 있다. 조직위는 그동안 시정관리와 입장권 판매 등을 고려해 전남도청 앞 전남개발공사에 있던 사무실을 F1대회인지도가 정착돼 감에 따라 이전했다. 조직위 이전과 함께 수의사업을 담당했던 전남도 분청 산하의 F1대회지원담당관실도 경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주장을 유지·관리하는 전남개발공사 F1경주장 사업단은 지난해 경주장에 사무실을 마련, 운영중이다. F1조직위는 앞으로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판매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장 주변 등 체합을 원하는 고객에게 경주장을 개방하는 등 지역민의 휴식과 여가 활용 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ny@kwangju.co.kr

## 설연휴 2919만명 이동... 서울~광주 7시간 10분

### 귀성인과 9일 몰릴듯

올해 설 명절은 주말과 겹친 짧은 연휴 탓에 예년보다 고향 가는 길이 더욱 피곤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이,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5일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월8~12일) 중 전국의 귀성·귀경 예상인원은 모두 2919만

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설 연휴 이동인원인 2916만명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하루 평균 이동 인원으로는 작년 486만명에서 올해 584만명으로 2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설이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귀성 인과가 설 전날인 다음달 9일 집중적으로 몰려 교통혼잡을 유발할 전망이다. 귀경도 설 당일인 10일과 다음날인 11일 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귀성에 걸리는 시간은 작년보다 2시간, 귀경 시간은 30분 가량 각각 늘어날 것이라고 국토부

는 전망했다. 도시별 귀성 소요시간은 ▲서울~광주 7시간10분 ▲서울~목포 8시간10분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9시간10분 ▲서울~강릉 4시간30분이다. 귀경 시간은 ▲광주~서울 7시간 10분 ▲목포~서울 8시간10분 ▲대전~서울 4시간50분 ▲부산~서울 9시간 ▲강릉~서울 4시간 등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시간으로는 설 전날(2월9일) 오전을 꼽은 응답자가 37.7%로 가장 많았다. 귀경 출발시간은 설 당일(2월10

일) 오후가 34.3%, 설 다음날(2월11일) 오후가 31.6%로 조사됐다. 교통수단은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8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 13.2% ▲철도 4.0% ▲항공기 0.6% ▲여객선 0.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는 경부선(31.5%)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 ▲서해안선(16.8%) ▲중부선(9.6%) ▲남해선(8.0%)도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한교통,광고효과최고!

**임대 총 1.2.5층 각 100평, 52평**  
**관장업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사무실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빌딩상가전문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영) 광주 서구 농성동 64-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눈여겨 보십시오!

**I. 나주혁신도시-상업용지**

- 메인도로3면코너 1080㎡ 매매가 24억5천만원
- 호수공원테라스거리 705㎡ 매매가 14억9천만원
- 호수공원내3면코너 1288㎡ 매매가27억3천만원
- 메인도로코너 1056㎡ 매매가 23억9천만원

**II. 나주혁신도시-근린생활용지**

- 배후아파트상권 640㎡ 매매가 11억6천4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610㎡ 매매가 11억6천5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720㎡ 매매가 12억원

**III. 남평강변도시- 상업용지및근린생활용지**

- 핵심상권코너 529㎡ 매매가 5억4천
- 핵심상권코너 449㎡ 매매가 4억원
- 핵심상권코너 416㎡ 매매가 4억1천만원
- 핵심상권코너 448㎡ 매매가 5억8천6백만원

나주혁신도시,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번지

###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성업중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 750평
- 건 물 : 1350평
- 용 자 : 20억~25억
- 매매가 : 40억원 (감정가 58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① 주월동 풍암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상가 대지89평, 건평 292평 매가 6억3천  
② 광산구 운수동 자연녹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장, 창고, 기든 등 적합)  
③ 세하동 서광주역 뒤 자연녹지(그린벨트) 도로 접 임전1,957평 매가 5억3천(투자최적)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거리  
010-8289-8549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111-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